

시 · 론

제17대 국회의원에겐 바란다



이석구 포천문화원 이사

제17대 국회가 6월1일 역사적인 개원을 한다. 당파를 떠나 이번에 당선된 국회의원들의 영광의 입성을 축하하면서 이들이 펼칠 4년간의 의정활동을 예의 주시하며 몇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린다.

- 1.생생적인 정치의 모습을 보여달라. 과거 역대 국회는 정략적 이기적 정쟁으로 영일하고 입기를 마감한 사례가 허다 했다. 국민으로부터 외면당하고 배척당했던 점을 감안하여 새로워져야 한다. 국민을 생각하는 국회로 소모적이고 비능률적인 국회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생각이다. 2.분과위원회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법률제정은 국회의원의 기본 책무이다. 분과위원회 활동을 통해 국회의원의 전문적 식견을 넓히고 대화와 토론문화를 활발히 하여 자신이 속한 분과위에

서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 과거 현안법안 민생법안들이 무더기로 '땡땡' 처리되는 졸속도 없어야겠고 오랫동안 묻혀서도 아니된다. 3.대사(大事)를 위해 지역에 너무 연연하지 말라. 지역현안에 대하여 무심할수 없었으나 지역문제는 지방자치 기구에 맡겨두고 지역발전의 큰 것들을 챙기는데 힘써야 한다. 표를 의식하는 행동보다는 소신을 갖고 임해야 한다. 국회의원 4년 임기는 짧은 것이 아니다. 처음부터 이선 삼선을 목표로 두지 말고 단 1회로 마감한다는 각오로 전력투구해야 한다. 4.변절하는 의원 되지 말자. 항상 국민의 뜻을 헤아려 행동해야 한다. 자신이 속한 당의 정책노선이 자신의 뜻과 다르다 하여 이쪽 저쪽으로 옮겨 다니는 변절자가 되어서는 국민의 신임을 잃게 마련이다. 자신이 속한 당에서 자신부터 개선,변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의견이 다르더라도 다수결의 원칙을 존중하는 민주적 사고를 지녀야 한다. 패거리,협잡,아합의 음모를 배격하고 초심의 순수한 마음을 끝까지 유지해야 할 것이다. 5.상생,화합의 정치를 보여라 혁신하고 개혁하는 것은 필요

하나 분별없는 대상에는 무모하게 매달리지 말아야 한다. 국민에게 뜻이 어디에 있는지 냉철히 판단하고 보수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노년층을 폄하해서는 안된다. 오늘이 있기까지 이 시대를 이끌어온 사람들을 격하시키고, 무용지물로 비하한다면 이런 사고야말로 수구적인 퇴행적인 생각이라고 보아야 한다. 6.역사를 배우고 아는 국회의원이 되어야 한다. 국가관의 형성은 역사를 배우며 형성되는 것이다. 과거를 모르고 역사를 모르면 편협되고 국가의 未來를 내다 볼 수 없다. 잡다한 정쟁에 귀중한 시간을 허비해서는 안되며 논리와 신념의 지식을 역사에서 찾기를 바란다. 7.문화예술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21세기를 문화예술의 세기라고 누구나 강조하면서도 현실은 아무런 변화나 청사진도 없다. 문화예술은 개인이나 국가 경쟁력에서 부가가치가 높은 산물이다. 문화예술을 사랑하고 즐기는 성숙한 국회의원이 되어야 한다. 4년 후 다시 돌아오는 국회의원을 국민은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전적으로 국회의원 여러분의 몫이 될 것이다.

자 · 유 · 기 · 고



이운구 연천군 (전) 경기도 의원

국가는 우리 연천군과 군민에 대하여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함으로써 그동안 소외감으로 허탈해하던 연천군민의 상처를 싸매어 주고 위로해 주는 정책과 개발이 있어야 할 먼저 기원한다. 우리 연천은 원치 않는 동족상잔의 전쟁 후에 철책이 놓이게 되었고 자연스레 군부대가 주둔하고 안보라는 논리에 희생만을 강요당한 채 운명처럼 십자가를 지고 살아 왔다. 군사시설보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재산을 행사하기 힘들게 되었고, 상가는 문을 닫고 교육, 문화 환경도 열악하게 되므로 이래저래 살기 힘들다는 원성이야말로 정든 고향을 떠나가므로 인구는 줄어들고 점점 지역이 낙후되어 왔다. 진실로 참여정부는 더 이상 방관하며 회생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이제 힘들게 살아온 연천 군민에게 큰 꿈과 희망의 선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몇 가지를 적어 본다.

첫째, 군사보호법 완화 및 철폐다. 이 법은 1973년에 만들어진 것으로 3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 군민을 압제하고 있다. 30년 전과 달리 작전이나 무기, 전력 이 달라진 만큼 법을 현실에 맞도록 바뀌어 지역이 발전하고 올바른 재산권이 행사되도록 만들어줘야 한다. 분명 법에 명시되어 있는 민원 처리기간도 엄

한다. 대략 연천군 상수도 물의 36% 정도를 주둔 군인들이 사용한다고 한다. 반복되는 훈련과 작전으로 인해 환경공해 유발은 물론 도로 훼손, 굉음, 교통 혼잡, 안면방해 등 엄청난 비용과 고통을 당하고 있다. 군부대는 왜 연천군에 주둔하고 포사격은 왜 전국에서 연천군으로 와서 하는가? 분

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연천이 통일시대에 중심으로 자리할 수 있도록 이런 규제는 철폐되어야 한다. 대학교 하나 정도는 있어야 한다. 이런 것이 큰 욕심일까? 넷째, 개발과 보존에 대하여 한탄감 땀을 흘린, 포천, 연천에서 찬반이 있지만 철원은 그 강도가 높다. 지금까지 접경지역에서 군사시설보호법 등으로 애

연천의 미래를 위한 작은 생각

수해서 주민의 편의를 돌봐줘야 한다. 심지어 몇 개월에서 해가 넘어 가는 예도 있다. 군민들을 생각하고 도와주는 듯이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그야말로 민원이다. 부대장이나 인근 부대의 장, 국방부 장관까지 처리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만큼 꼭 지켜 처리해 주길 바란다. 이곳연천에서 50년 살다가 쓰러져가는 집 한 칸 그 자리에 새로 짓는데 법이 어쩌니 하며 부동산의 처리되고 주민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하 세월 한다 면 아픔을 이고 접경지 연천을 지키고 살아온 사람들에게 국가가 가슴에 못을 박는 일이 아니고 무엇이었는가? 둘째, 군인주둔과 포사격 부담금을 반드시 연천군에 주어야

명한 것은 국민의 안보 때문에 그렇다. 서울시, 인천에서 맑은 수돗물을 먹기 위해 유기농, 환경규제로 규제받는 양평, 가평 등에 물 부담금이라고 해서 수돗물 값을 올려 마련된 재원을 양평, 가평 지역에 지원하고 있다. 우리 연천을 위해서 이제 우리에게 더 이상의 희생을 강요 할 수 없다. 이제는 열악한 재정적 연천 군민에게 진정으로 보상차원의 예산이 지원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철폐다. 이 법의 목적은 인구유발억제에 있다. 인구가 계속 줄어드는 안타까운 연천! 7만 여명이 5만 명 이하로 줄어드는 위기를 맞았는데 수도권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규제한다

를 먹었는데, 땀이 건설되면 수변 구역 규제, 축산시설, 공장시설 등에 대한 환경유발규제 등이 중첩될 것이다. 연천의 자라는 맑고 깨끗한 자연 환경이다. 자연 환경유산에 대한 보존과 지역 발전을 위한 열병을 앓고 있다. 솔로몬의 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개발과 보존의 양 수레 바퀴가 조화롭게 굴러갈 수 있도록 힘쓰고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맑고 희망찬 푸른 연천! 맑고 희망찬 푸른 연천군이 되고 환한 군민의 웃음이 피어날 수 있도록 정부는 접경지, 낙후된 연천을 희망의 땅으로 규제 없는 지역으로 만들어 주길 바란다.

주 민 발 언 데

※ 주민의 의견이나 포천신문 홈페이지(www.ipcs21.com) 네티즌의 의견을 가감없이 게재하고 있으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차선 도색 필요

포천 농협에서 한신아파트까지 올라 가는 길에 얼마전에 포장공사 하고 새로이 차선 도색을 했는데 너무도 형편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길을 3차로 형태로 포장을 하고 도색을 했는데, 낮과 밤의 구분 없이 거의 길 양쪽 편에 불법 주차가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하여 중앙선 침범의 사고가 발생되면 가해 차량의 운전자는 교통사고 특장차중차별법에 의하여 많은 벌이이익이 발생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차선 도색을 할때 좌회전 차량의 차로를 확보해 주려는 배려는 심분 이해는 되지만 그 뜻에 반해 좌회전 차량의 차로 확보 때문에 비좁아진 도로는 오히려 주행차량의 중앙선 위반이라는 역효과를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의 짧은 생각이지만 좌회전 차로를 없애고 차라리 한줄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시면 불법 주차로 인한 차로의 줄어드는 등 정상 주행 차량의 중앙선 침범은 더이상 없을 것 같아 글을 올립니다.

담당 되시는 분은 참고하시어 시정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동현

강병원 쪽에

강병원 옆 쪽에 분명 노점상으로 되어있는 떡볶이 집인데도, 한 밤 중에 주류를 파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것도 환자들한테 말이지요. 이거 안되는 거 아닙니까?

주류를 파는 노점상 포장마차는 허가를 받는 걸로 알고 있는

데, 도대체 왜 거기서 술을 팔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경기가 이모양 인지라 시정에서는 봐주고 있는 겁니까? 강병원 옆에 정형외과 인걸로 알고 있는데, 정형외과에서 진료하는 질병은 알콜이 들어가도 무관한 건가 보고요.

포천군이 시로 승격되면 좀 달라질 줄 알았더니 이젠 꽤 실망입니다.

이렇게 맘대로 주관적인 비판을 해서 죄송하지만, 이젠 좀 많이 과도하게 잘못된 것 같습니다.

뭐 노점상이 술을 팔건 말건 제가 상관할 바도 아니고, 눈살이 찌푸려 지게만 하면 그만이지만, 노래방에서도 술을 팔거나 마시게 하는 건 없는 거 같은데... 물론 노점상은 식품위생법에 뒤든 지 불법이지만 술은 말 그대로 over입니다.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눈에 거슬리는 건 물론이고, 노점상에서 초차 술이 왔다갔다 하는 거

게다가 분식노점상에서 그러는 거 이해 안됩니다.

차라리 그 쪽에다가 실외 포장마차 허가증을 내주시던지요, 일방적인 비판만을 하고 가서 죄송합니다.시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최철현

야구 함께하실분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포천을 중심으로 1999년 창단하여 지금껏 운동하는 사회인야구단 "엘리펀츠"팀입니다. 지원비선수 출신으로 구성 매년 사회인 야구리그에 참여하는

팀입니다. 매주 운동장에서 어릴적 꿈을 이루어 보세요.

현재인원 14명 3-4분대 영입을 준비중입니다.

실력도 좋지만 가까운곳에서 함께하실분을 모집합니다. 궁금사항은 연락주세요. 단장 : 류 성민 011-268-4624 www.elephant21.wo.to 류성민

류성민

포천에서 의정부까지 아침에 출근하는 사람 찾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언어,사지 뇌성마비 1급 박용철입니다. 31세 가끔씩 날 서울에서 불일 있어요 차량 봉사 부탁해요. 시간: 아침6시 30분이후 가능 장소:포천LG 슈퍼에서 만나고

싶어요. 의정부역까지 차로 데리고 해요.

연락처:016-878-9818 문자해 주세요. 언어장애가 있어서

제 혼자서 차 속에 탈수 있어요.뽕고도 탈 수 있어요. 운전만 하세요 용철의 e-mail :pyc74ij@hanmail.net 꼭 연락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박용철

시내버스, 공영버스 직행버스 노선안내표 없나요?

포천에 거주한지 5년이 되어도 각각의 시내버스가 어딜 지나는지 몰라 항상 버스를 이용하게 되면 운전기사분께 노선을 물어

보고 버스를 이용하게 됩니다. 그때 마다 기사분들의 짜증섞인 대답과 고개만 끄덕끄덕하는 모습을 보고 힘겹게 버스를 이용합니다.

또한 그 어디에도 몇번 버스가 어딜 지나는지 노선표가 그려진 곳도없습니다.

시로 승격이 되어도 주민들의 조그만 불편도 해소 되지 않는 행정을 보며

과연 시 승격이 무슨 의미를 가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시내버스, 공영버스, 직행버스 업무분담에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각 정류장에 그 길을 지나는 버스번호(138,660,61,72등)나, 버스 노선안내도를 설치또는 그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포천시의 시민뿐 아니라 관광을 오는 여행객에게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김은정

협 조 문



정지선을 지킵시다

우리가 경찰에서는 2004년 5월부터 『정지선 지키기』 생활화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일부 운전자들께서 교차로나, 횡단보도 전면에서 정지선을 지키지 않고 교차로에 정차하는 가 하면 신호가 정지 신호로 바뀌었는데도 그대로 차량의 꼬리를 물고 진행하다가 교차로 상에서 대형사고를 유발하고 교통질서를 마비시키는 행위가 다반사로 빈발하고 있습니다.

이에 경찰에서는 2004년 6월1일 부터 정지선을 지키지 않는 차량에 대하여는 신호위반등으로 단속할 계획이오니 여러분의 안전과 사회질서 유지를 위하여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 반 단 속 기 준

위반기준 : 자동차의 범퍼가 정지선을 넘어간 경우

단속대상 (고의적인행위) →통고처분 (승용차 기준)

앞바퀴가 정지선을 넘거나 다른차량 · 보행자 통행에 지장을 주는 경우

※ 신호위반 (15점, 6만원) : 적색 신호시 정지선 초가 정지

※ 보행자 보호의 무위반 (10점, 6만원) : 횡단보도 통행시 정지하지 않은 경우

※ 교차로 통행방법위반 (4만원) : 교차로에 꼬리 물릴 때 진입하는 경우

※ 일시정지 위반 (3만원) : 일시정지 장소에서 일시정지 하지 않고 진행